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라

(히12:2)

서론: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풍랑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풍랑 속에 빠졌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볼 때 문제와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본 모세의 말은 달랐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고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향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오직의 답을 찾으며,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벗어나 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1. 기쁨 - 구원의 축복

- 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축복과 생명 주심에 대한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히12:2).
- 나. 영적 상태의 근원이 치유된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고 누리게 하옵소서(유월절).
-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함께하시며 근원적인 힘을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맥추절).
- 라. 내 인생의 모든 미래와 영원한 천국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하심에(수장절),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2. 보좌의 축복

- 가. 보좌의 축복 누림으로 환경, 문제 상관없이 승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사6:1, 5).
- 나. 미션을 알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며,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승리할 유일한 길인 보좌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40일 집중에 도전하게 하옵소서(창28:15).
- 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보좌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마12:28-29).

결론: 진짜 감사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이고,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나 받아야 할 축복인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인생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배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찾아 누림으로 참된 기쁨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보좌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모든 미션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